

## 조선시대 펠트(felt)의 사용범위와 특성

민보라<sup>†</sup> · 홍나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The Usage and Feature in Joseon Dynasty's Felt

Bora Min<sup>†</sup> · Nayoung Ho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접수일(2008년 3월 4일), 수정일(1차 : 2008년 6월 19일, 완료일 : 2008년 8월 7일), 게재확정일(2008년 8월 29일)

#### ABSTRACT

Since brought into from the economic life of nomads, the felt, the target of this study, has been developed in various ways of giving the functions of class symbol as well of protection against the cold and of ornamentation. Therefore, the study on how the felt was developed in Joseon Dynasty and how different culture from nomadic tribes it formed is significant in 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the economic,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Dynasty. The felt named “*Jeon*” has been constantly appearing in Korea from the ancient time, but it was not produced actively in the early part of Joseon Dynasty. That's why it was not a climatic condition suitable for sheep-breeding, and the government managed sheep-breeding but it aimed primarily at not producing clothing materials but having memorial ceremonies. Since sheep-breeding was not widely spreaded, production of *Jeon* was limited and some part was imported from China, so it was one of rare valuable goods. Therefore, the felt of wools named “*Yangmojeon*”, the colored felt named “*Chaejeon*”, etc. were used as liking items in the high-class society, and their materials and components were a little different depending on the official post. On the other hand, people in the low-class society used to wear the felt hats made of cattle feathers and miscellaneous fur, named “*Jeonlip*” and “*Beongeoji*”. Since the middle of Joseon Dynasty, use of the felt was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users and the function, along with successful spreading of cotton and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The function of *Jeon* to protect against the cold was replaced by cotton, but the felt hats of *Beongeoji*, *Jeonlip*, etc. were worn by common people continuously. As seen above, it is considered that the felt culture in Joseon Dynasty was formed very differently from the nomadic culture, because of its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and it had unique developing progress among all available fabrics.

**Key words:** Felt, Sheep-breeding, Jacket with Felt(*Jeonsam*), Felt hat, *Jeonlip*; 전(氈), 양사육, 전삼(氈衫), 펠트모자(氈帽), 전립(氈笠)

#### I. 서 론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생산된 모직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되었으며 문헌에 나타나는 종류와 명

칭도 매우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모직물 가운데 펠트는 직조에 의한 직물이 아니라 동물 털의 축융성을 이용하여 수분, 마찰, 압력 등을 가하여 만든 것이다. 펠트가 최초로 출토된 지역은 주로 알타이 산맥 부근, 훈족의 문화권에 속해있던 북몽고 지역 등 북방 유목민족이 활동하는 지역이었다(Burkett,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jully2@museum.go.kr

1979). 이는 펠트가 유목생활양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펠트적으로 된 직물을氈이라는 명칭으로 *三國史記*(1573/2000)의 흥덕왕條 車騎에 氈苦布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漕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청의 양모 펠트직 모자가 대량으로 수입된 기록이 있어, 모자와 함께 수입된 펠트의 양도 상당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출토된 복식은 다른 시대에 비하여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펠트직물이 출토된 경우가 거의 드물고, 19세기 모자와 갑옷, 생활용품 유물에서 일부 펠트직물이 보이고 있을 뿐 다양한 펠트직물은 보기가 매우 힘든 편이다. 본래 펠트는 유목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품목이지만 조선시대의 펠트문화는 유목민의 것과는 분명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적 요인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문화적 요소에서 오는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펠트는 어떤 위치였고 상층과 하층계급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사회적 배경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문화를 형성하는 자연 환경적 요소, 사회·경제·문화적 요소 등 서로 다른 영역과의 연관성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부족한 유물을 대신하여 그림 자료와 문헌의 기록을 참고하였다. 펠트직을 만드는데 가장 이상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것이 양모이기도 하며 조선시대 문헌을 통해서 언급되는 펠트직은 주로 양모전과 우모전 뿐이기 때문에 펠트의 원재료는 羊毛과 牛毛로 한정시켰다.

## II. 펠트문화의 형성 요인

### 1. 자연환경적 요인

문화의 형성 조건에는 지정학적 위치, 종교, 사상, 자연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특히 자연환경에 있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철학이나 지리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어온 문제이다. Huntington(1915)은 기후적 환경이 인간의 능력을 지배하고 그것에 따라 세계 문명의 차이가 결정된다고 주장했으며 최근에도 기후에 따른 환경결정론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

다. 기후가 문명전체를 혁신할 만큼 직접적으로 역사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생활양식과 정신적인 활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부에 위치하는 반도국으로서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적 특성을 갖는다. 즉, 한반도 남부는 서남 일본과 비슷한 기후이지만 점차 북부로 오면 아시아 대륙 내부의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나타낸다(김연옥, 1985). 우리나라 중부, 북부는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는 한랭한 기후를 띄기 때문에 모피류는 방한 재료로서 의복생활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일 것이다. 인류 역사상 17세기는 전형적인 소빙기적인 기후 상태를 보였다는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17세기도 이러한 현상과 다르지 않았다. 김연옥(1985)은 실록의 기사 분석을 통해 소빙기를 3기로 나누었는데 1기는 1511~1560년, 2기는 1641~1740년, 3기는 1781~1850년이다. 실록에서는 17세기 전체에 걸쳐서 5월과 6월에도 서리가 내린 기록이 있는데, 특히 *孝宗實錄*(1661/1994)에는 효종 6년(1655)의 5월 3일 제주도에 큰 눈이 내려 말이 900여 마리나 죽었으며, 6월 6일에는 함경도 會寧, 鍾城에 우박이 내렸다. 심지어 7월 22일에도 경상도에 눈이 내릴 정도로 극심한 이상 저온 현상이 계속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 시기 수목의 나이테 연구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최중남 외(1992)에 의하면 중부 산간 지역의 나이테 분석을 통해서 17세기의 1636~1693년 동안 가장 한랭했던 해를 1684~1693년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후 조건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조선후기에 일시적으로 모피류의 착용이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나 모직물 생산이 더 활발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모피의 착용과 발전을 기후적인 요소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분명 일차적인 이유에 있어서는 방한의 목적으로 출발하였을지라도 *世宗實錄*(1454/1958), 세종 22년(1440)과 *中宗實錄*(1530/1989), 중종 5년(1510) 등 실록을 통해 毛物과 관련된 금지의 내용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의복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도 자연환경의 일부에 속해있는 개체이나 의복 착용의 주체는 인간이므로, 복식은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된 여러 제반영역에서 생산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역사적 조건이 반영된 구조 안에서 종합적인 인

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사회문화적 요인

자연환경적 요인이 복식에 있어서 신체보호기능과 관계가 있다면 사회문화적 요인은 사용자의 심미성과 관련이 깊다. 심미성은 어떠한 대상 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체험을 대상에 투영시켜 감성적 속성과 그 대상을 공유하는 것이다(조영식, 2006). 그것은 주관적일 수도 있으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통용되어 정형화된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이렇게 정형화된 특성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미적가치를 형성하며 문화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펠트는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천막, 의복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펠트의 주원료가 되는 양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버릴 곳이 없을 만큼 유목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죽이다. 펠트를 만드는 과정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펠트제작은 유목부족 공동의 큰 행사로 진행된다. 이러한 공동체적 행사는 일종의儀式화가 되어 단순한 직물의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 상징성을 띄게 된다. 즉, 유목인들의 경제와 사회문화를 그대로 함축하고 있는 것이 이 펠트인 셈이다. 반면, 조선시대의 펠트는 유목민들의 것과는 다른 전개 양상을 보인다. <표 1>의 문집에 나타난 氈의 은유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조선시대의 펠트는 유목민들의 것과는 다르게 발전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펠트문화에 대한 사회적 미적가치와 그 위치는 다음 몇 가지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문집에서는 氈과 관련된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細氈·靑氈·猩猩氈 등이 많이 표현되고 있다. <표 1>의 畢齋集(김종직, 1640/1997)에 나타난 細氈은 보통 바닥에 까는 고운 氈을 이르는 말이나 御前, 즉, 임금을 뜻한다. 이러한 표현은 점필재 집 외에도 成宗實錄(1499/1995), 성종 14년(1483)에 論思於慶氈之上이라 하여 慶氈이라는 단어와 함께 임금을 지칭하는 뜻으로 자주 나타난다. 두 번째 猩猩은 중국에 전하는 상상 속의 짐승으로 사람과 비슷한데 몸은 개와 같으며 주홍색의 긴 털이 있다. 현재에는 오랑우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시에서 성성은 猩猩氈에서 비롯된 말로 화려한 붉은 毛氈을 간 성대한 잔치 자리를 비유한 뜻이다. 한국고전번역원에 의한 각주에 의하면 이는 白居易의 感興詩에 “술동이 앞에 유치시킨 건 성성의 피이고 장막위에 안일도모함은 연연의 집이로다(樽前誘得猩猩血 幕上偷安燕燕, 白樂天後集 卷十三)”라는 글에서 온 말로 설명하였다. 성성전은 正祖實錄(1805/1995), 정조 4년(1780)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산물이 아니라 중국의 내몽고에 위치한 鄂爾斯라는 곳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靑氈은 晉의 王獻之 고사 중에 도둑이 그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가 도둑에게 “다른 것은 다 가져가더라도 푸른 氈은 우리 집 옛 물건이니 특별히 놓아두게”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정약용, 조선 후기/1994). 즉, 여러 대로 내려오는 학문의 전통이나 집안의 가보를 뜻한다. 이와같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신분과 권위, 희소 가치가 있는 귀중한 물품으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氈이 보온이라는 기능적 요소 외에 부드러운 촉감과 일반 직물과는 다른 다양한 질감, 氈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색깔과 유연성 등의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氈의 주원료가 되는 질 좋은 羊毛은 조선시대 특

<표 1> 문집에 나타난 氈의 표현

문헌명	권 수	내용
畢齋集 (김종직, 1640)	제 15권	大事吾何敢擔當 宵從古少良方 細氈顧問如將備 要取君詩誦五章 큰일을 내가 어떻게 감히 담당하리오 고황에는 예로부터 좋은 약이 없다네 어전에서 임금의 고문에 장차 대비하자면 의당 그대의 시 다섯 장을 가져다 외우리
畢齋集 (김종직, 1640)	제 18권	曲江苑裏共蜚聲 今日相看眼更青 老大營巢吾燕燕 康剛嗜酒子猩猩 곡강원 안에서 함께 명성 날리었는데 오늘날 서로 만나니 눈이 다시 반갑구려 늙어서 등지 짓는 나는 한 쌍의 제비요 건강하여 술 즐기는 자네는 성성이로다
茶山詩文集 (정약용, 조선후기)	제 7권 經義詩	古箋三十有三家 集解淘金或見沙 此是靑氈舊遺物 十回一摩 옛날에 주석을 낸 사람이 삼십삼 인인데 집해에서 혹 덜 걸러진 것도 있기는 하나 이것이 바로 우리 집 청전의 유물이기에 열 겹으로 단단히 싸고 한번 만져 보노라

성상 다량 생산할 수 없는 원료였기 때문에 그 희소 가치를 지닐 수 밖에 없었다. 다음의 조선시대 펠트 제작실태에서 조선시대의 양 사육과 생산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해답을 풀어가기로 한다.

### III. 조선시대 氈(felt) 제작실태

#### 1. 양의 사육과 羊毛의 생산

우리나라에 양이 들어온 것이 문헌으로 확인되는 최초는 고려 때이다. *高麗史*(조선/2002)에 의중 23년(1169) 7월에 金에서 양 2천 마리를 들여온 것을 비롯하여, 원종 4년(1263)에도 원으로부터 양 5백마리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조선초기의 양 사육은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太宗實錄*(1431/1958), *太宗* 14년(1414) 8월에 개인적으로 양을 기른 것에 대해 죄를 묻고 있는 기록을 보아 당시 양 사육은 개인적으로 기르는 것이 금해져있었고, *태종* 16년(1416), 5월의 기록을 보면 국가기관인 典書와 禮賓侍에서 양 사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 *태종*과 *문종*간의 기록에는 중국에서 양을 가져온 기록과 그 양을 팔도에 보내어 시험 사육을 한 사실이 종종 언급되고 있어, 국가에서 양 사육과 보급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전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양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고 羚羊角만이 나타나고 있으며, 양 사육이 각 지역에 보급되어 토산품으로서 안정적으로 사육되기 시작한 것은 *중종*대에 이르러서이다. *中宗實錄*(1550/1989), *중종* 11년(1516)에는 상의원에서 양모를 견어들이는데 따르는 폐해를 지적하고 있어 이미 공물로서 양털이 진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는 각 지역에서 나는 토산품 가운데 양과 관련된 물품을 토산품으로 하는 지역을 비교한 것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양성지, 이행, 1530/1969)에서는 영양을 토산품으로 하는 지역이 총 46곳이며, 양

을 관리하는 우리(羊棧)가 있는 곳이 3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선전·중기에 편찬된 농서에는 사육에 관한 기록은 없고 말과 소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1600년대 이후의 농서인 *山林經濟*(홍만선, 조선/2004), *農政書*(조선후기/2000), *林園十六志*(서유구, 1827/2005)에 비로소 양 사육에 관한 것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농정서에는 모전을 만드는 방법도 설명되어있어 모전의 사용이 보편화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농업 관련 서적에 양 사육에 관한 내용이 160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앞에 언급한 실록에 나타난 상황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즉, 조선시대에 양 사육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은 1500년대 들어서이며, 그 이전의 양 사육은 국가적 차원의 관리하에 있어 대중적으로 대량 사육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양 사육은 氈과 같이 양을 사육하면서 얻게 되는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역질이 들때 여귀에게 지내던 厲禁나 성균관에서 지내던 제사인 小宰 등 나라의 중요한 제사시 제물로 사용된 것이 양이었기 때문이다. *太宗實錄*(1431/1958)의 *태종* 11년(1411)과 12년(1412)에 나라의 제사에 사용할 양을 무역해오라는 것과 양은 본래 희생을 위한 것이므로 宴享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명을 내린 기록이 있다. 또 *世宗實錄*(1473/1958) *세종* 30년(1448) 7월에 제사에 쓰는 양은 마음을 다해 기를 것을 전지하는 내용도 언급되고 있어 당시 양의 사육은 신성한 제사를 위한 목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2>의 임원십육지를 보면, 조선후기로 오면서 양을 토산품으로 하는 지역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1700년대의 몇 가지 기록으로 당시 양 사육의 현황을 추측해 보았다. *正祖實錄*(1805/1995)의 *정조* 7년(1783년) 7월에 *洪良浩*의 상소문과 *熱河日記*(박지원, 1780/2004)의 *駟隨筆*, *燕輶直指*(김경선, 1832/2001), *出疆錄*의 12월 *帽廠記*의 기록들을 보면 양에 대한 실

<표 2> 양모의 생산지

토산품	지 역		
	世宗實錄 地理志(1454)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林園十六志(1827)
羚羊		충청도(3), 경상도(1), 황해도(1), 강원도(14), 함경도(9), 평안도(13) (총 46)	관동(10), 해서(2), 관서(13), 관북(9) (총 34)
羚羊角	충청도(2), 경상도(1), 전라도(2), 황해도(2), 강원 도(4), 평안도(1) (총 12)		
羊棧		전라도(3)	
牛毛	평안도(1)		

용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조선에서의 양 사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조선초기에 비하여 1700년대에도 여전히 양의 사육과 보급은 생각보다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牛毛는 <표 2>의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한번만 언급되고 있으나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관찰서이기 때문에 국가필요에 의한 기록이다. 즉, 왕실에 진상된 것이나 하사품 등을 위주로 기록이 되어있다. 따라서 우모전의 실제 사용 여부는 문헌의 기록과 차이점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氈은 주원료가 되는 양모의 수급과 양의 사육은 대량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직물에 비해 희소가치가 있는 직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풍속화에서는 氈으로 된 병거지나 전립 등을 착용한 서민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원료의 생산 외에도 氈의 사용례를 분석하여 무역과 시장유통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용도에 따른 계층별 氈의 사용례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나는 氈의 사용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용도로 나눌 수 있는데 모자와 의복류, 생활용품류, 외교품목을 포함한 하사품이다. 계층별로 사용된 氈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상층과 하층 모두의 계층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품목을 비교하였다. 氈과 관련된 용어로 牛毛氈, 羊毛氈을 비롯하여 毛氈, 彩氈, 畫氈이 등장하고 있으나 각 상황에 쓰임에 따라 의미를 설명하였다. 또, 펠트직 직물을 氈으

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 1) 모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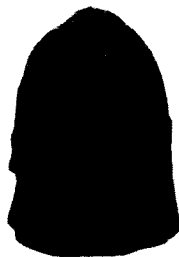
조선에서 제작한 氈 모자의 형태나 제작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글로 남겨진 것은 없다. <그림 1>의 송시열(1607~1689)의 초상화를 보면 氈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모직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풍속화에서도 병거지나 전립을 착용하고 있는 예가 많이 보이고 있어 당시 氈을 사용한 모자는 상위층에서부터 하층까지 다양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실물로 확인 가능한 유물로는 소모자와 충정관, 전립이다. <그림 2>의 소모자는 광주시 압촌동에서 출토된 것으로 묘주인 高雲은 생몰연대가 1479~1530로 비교적 조선 초기에 해당된다(광주민속박물관, 2000). 소모자는 두 종류가 나왔는데 氈으로 된 소모자는 외모자로 사용되었고, 외모자 속에 끼워져 있던 것이 견으로 된 소모자이다. 고깔형의 원통형이며 한판으로 되어있어 봉제부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소모자의 명칭에 대해서는 雅言覺非(정약용, 1819/1976), 武藝圖譜通志(1790/1995)에서 위로 좁아지는 형태의 것을 坎頭라 하고 甘吐, 鬮頭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四禮便覽(이재, 1844/1992), 冠禮에서는 紗, 羅, 緞으로 만든다고 하였으나 成宗實錄(1499/1995), 성종 14년(1483)에 黑羊毛甘吐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어 羊毛氈으로 감투를 만드는 예도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3>은 강원도 호서면에서 출토된 것으로 忠靜冠으로는 유일하게 氈으로 만들어진 관이다. 清江先生鱗鱗瑣語(이제신, 1629/1991)와 練藜室記述(이금익, 조선/1976)에 의하면 형태는 정상이 높고 둥글며, 梁冠의 모양을 모방하여 사면이 둥글고 모가 없다. 또 관의 앞면에 6개의 장식용 끈이



<그림 1>

<그림 1> 송시열 초상(1607-1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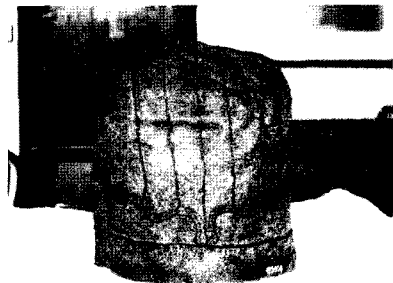
자료출처: 한국국제교류재단. (1997). 일본소장 한국문화재 4. p. 158.



<그림 2>

<그림 2> 高雲(1479~1530)의 소모자

자료출처: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00). 霞川 高雲 출토유물. p. 21.



<그림 3> 충정관, 조선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료출처: 이미식, 송미경. (2001). 조선시대 충정관의 보존처리. 박물관보존과학, 3, p. 33.

부착되어 있다. 이 충정관은 이미식, 송미경(2001)이 보존처리과정 중에 관의 재료는 양모이며 장식끈은 견섬유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정관이 출토된 묘의 주인은 확인 할 수 없었고 다만 무덤의 형식에 의해서 조선시대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두 유물이 16~17세기의 상층계급에서 나타난 氈 모자라면, 전립은 상층과 하층계급에서 모두 착용되는 것으로 조선후기까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재료에 있어서 앞서 출토된 모자보다는 조악한 펠트직으로 각 종 짐승의 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윤기가 적고 털이 섬세하지 못하다. 朝鮮常識(최남선, 1947/2007)에 의하면 원래, 전립은 짐승의 털로 펠트를 만들고 그것을 골에 넣어 둥근 帽屋에 양태를 단 입자형으로 만든 것으로 氈笠이라고 표기했던 것이다. 조선초기부터 군사용품으로 착용되면서 戰笠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宣祖實錄(1616/1994), 선조 26년(1593년)에 개정된 복식 착용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한 기록에 의하면 모든 禁軍은 氈笠을 쓰고 소매가 좁은 袍를 입게 하라고 하였다. 또 練藜室記述(이궁익, 조선/1976)과 靑莊館全書(이덕무, 조선/1978)에 의하면 정묘호란 때 사대부와 무인들 모두 이 전립을 착용하였고, 이후에도 사계절을 통해 항상 착용하여 폐단이 크다고 하였으니 전립은 군사들만 착용하는 모자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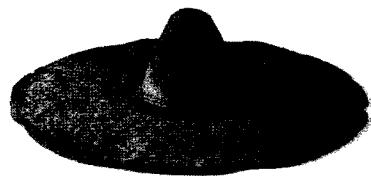
나 병자, 정묘호란 이후로 문·무관 평민들이 모두 통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전립이라도 그 재료와 장식은 다르다. 獻宗實錄(1851/1990), 헌종 7년(1841) 3월에 근래에 將臣들이 모두 竹戰笠을 쓰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舊例대로 毛戰笠을 착용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增補文獻備考(1908/1996), 고종 원년(1864)에도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1800년대 전후로 상급관리, 특히 文臣의 경우 죽전립을 많이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의 철종 어진에서도 융복과 전립을 착용하고 있지만 氈으로 만든 전립이 아니라 말총이나 細竹으로 만든 죽전립으로 추정된다. 반면, 돼지털과 여러 가지 짐승의 털을 섞어서 만든 전립은 주로 군인들에게 착용되었다. 萬機要覽(1808/1972), 軍器편에서는 紅氈笠과 黑氈笠이 품목으로 기록되어있으며 유물로도 다수 남겨져 있다. <그림 5>는 상모와 공작 깃으로 장식하고 밀랍으로 만든 불수를 장식하였는데, 불수 외에도 매미를 장식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 서민들이 착용하던 氈 모자로는 돌모와 병거지가 있다. 돌모는 농악대들이 농악을 할 때 상모를 돌리는 사람이 착용하는 모자이다(그림 7). 이는 전립의 형태를 본떠 만들었으나 상모를 고정시키기 위해 모정부분이 원추형으로 되어있고 양태가 접하는 부분에는 한지로 장식되어 있다. 병거지는 <그림 6>과 같이 전립과 유사하나 모정이 작고 테가 평평하며 넓은 형태의 모자이다. 형태가 반듯하게 정리된 앞의 전립과는 달리 봉제선이 없는



<그림 4> 철종어진(1861) 세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자료출처: 문화재청. (2007). 한국의 초상화. p. 19.



<그림 5> 전립(19세기) 피바디에섹스 박물관 소장  
자료출처: 장숙환. (2003). 전통 남자 장신구. p. 106.



<그림 6> 병거지(19세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자료출처: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민족역사문화도감의 생활. p.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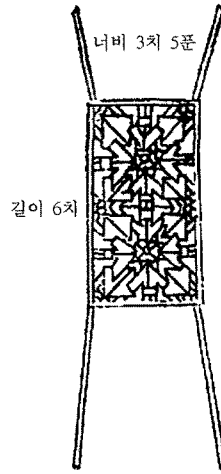
<그림 7> 돌모(20세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자료출처: 장숙환. (2003). 전통 남자 장신구. p. 109.



<그림 8> 김홍도 풍속화첩 中 신행(조선후기)

자료출처: 국립중앙박물관. (2001). 조선시대 풍속화, p. 195.

펠트직이며 모자의 테부분이 단정치 못하고 모양새가 흐트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조선후기 김홍도의 풍속화 <그림 8>에서는 이러한 병거지를 착용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 이 모자의 수요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紅錦臂鞵

자료출처: 성현. (1493). 樂學軌範. 이해구 역 (2001). p. 59.

2) 의복

氈의 의복류에 사용된 예는 그리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19세기 유물에서 배자의 안감이나 갑옷에 사용된 경우는 볼 수 있으나 시대가 올라가는 유물은 없고, 문헌의 몇 가지 기록으로 의복에 사용된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시대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은 성종대에 편찬된 樂學軌範(성현, 1493/2001)에 기록된 氈이다. 氈은 양모전으로 <그림 9>과 같이 冠服圖說 아악의 순, 탁, 요 등을 잡는 악공이 착용하는 紅錦臂鞵의 안감에 붙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악학 궤범의 역주에 따르면 비구는 넓은 소매를 동여매는 팔찌 같은 것이다. 영조 28년에 편찬된 尙方定例(1752)는 궁중에서 소용되는 품목을 적어놓은 것으로 氈을 사용한 의복과 생활용품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표 3>은 이러한 상방정례의 의복기록과 갑옷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氈, 그리고 왕으로부터 사급된 의복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 대상에 따라 의복에 사용된 氈의 구성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데, 氈衫의 경우 頒賜 용품과 세자궁으로 들어가는 물품의 구성이 다르다. 頒賜品의 경우 걸감은 靑綿布을 쓰고 안감으로 우모전을 사용하지만 세자궁 및 儀賓所로 들어가는 전삼은 색상이 있는 氈을 직접 걸감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전삼은 주로 왕실용품이나 왕의 사급이나 반사 품목으로 나타나고 일반적인 군사용품에는 나타나있지 않았다. 그만큼 사용 대상자에 제한이 있으며 귀한 품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모전을 속으로 사용하고 있는 壁衣는 여러 가지로 추정되는데 일본 측의 복식사전(田中千, 1998)에 의하면 “壁”은 꼬임있는 실로 천을 짜서 천의 표면이 벽과 같이 보이는 직물의 한 종류라고 하였다. 또 礪溪隨錄(유형원, 1670/1962) 續編에서는 중국의 의관을 설명하면서 襪積에 대해 “袍와 같으나 단령은 아니며 보통 옷은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浮大하게 하지 않았으나 땅에서 떨어진 거리의 치수는 똑같다”라고 설명하였다. 중국의 한자를 “壁”로 차음하여 썼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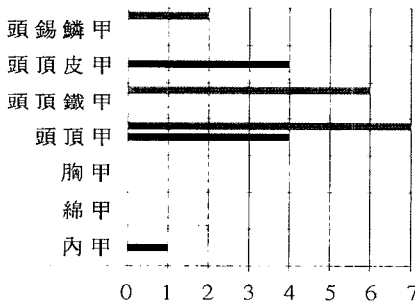
<표 3> 의복에 사용된 氈의 종류

명칭 및 내용	출전	사용대상	비고
[年例進排] 伍幅氈衫	尙方定例 권1 恒例(天)	大王大妃殿·中宮殿嬪宮·賢嬪宮	왕실진상
伍幅氈衫: 表靑綿布 朔羊毛 捌幅壁衣: 表靑綿布 裏綿布 牛毛氈 柒幅壁衣: 表靑綿布 裏綿布 牛毛氈	尙方定例 권1 恒例(天)	節日進上 年例進排	頒賜
藍注五紬氈衫: 藍氈, 內拱藍注五紬	尙方定例 권2 別例 上(地)	世子宮	왕실진상
氈衫: 黑氈, 內拱眞藍鼎紬	尙方定例 권2 別例 上(地)	儀賓所着	왕실진상
猩猩氈 1부	萬機要覽 軍政編3, 軍器	御營廳, 갑주의 재료	
氈衫	世宗實錄 권8	魯山君	賜給
黑氈衫	世宗實錄 권25, 1424년	知中事 郭存中	賜給

가정한다면 “襜褕”이라는 袍를 지칭하는 것인지 추측해 볼만하다. 그러나 여기서 壁衣에 대한 규명은 다음 연구로 남겨두기로 한다.

군사용품으로 사용된 氈을 분석해보면 <표 6>과 같이 의복보다는 왕이 사급하는 전립에 대한 기록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남아있는 갑옷 유물에서도 氈의 사용이 많았다. 문화재관리국(1987)에 의해 조사된 18~19세기의 36개 갑옷 유물 가운데, 걸감에 사용된 직물의 비율을 보면 <표 4>와 같이 氈이 15건, 綿이 11건, 絹이 10건이다. 이 가운데 걸감에 주로 氈을 사용한 갑옷은 <그림 10>의 豆錫鱗甲을 비롯하여 頭釘鐵甲과 頭釘鐵甲, 頭釘甲으로 나타났다. 착용자가 확인되는 갑옷을 살펴보면 府使나 종3품 무관 僉使, 정3품 무관인 수군절도사로 비교적 지위가 있는 상급 관리직으로 나타났다. 또, <표 3>의 猩猩氈은 군사용품에서만 언급된 것으로 御營廳으로 들어가는 갑주 376부 중에서 1부만이 성성전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재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4> 갑옷의 걸감으로 사용된 직물  
1. Red: 氈, 2. Green: 絹, 3. Blue: 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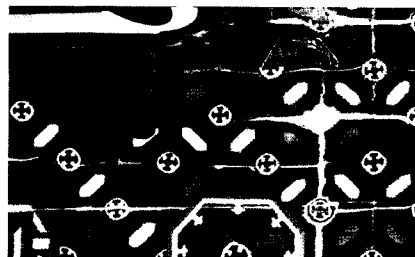


<그림 10> 豆錫鱗甲(18세기),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자료출처: 고려대학교박물관. (2008). *고려대학교박물관 명품도록*. p. 125.

3) 깔개류

생활용품으로 사용된 氈은 문헌기록에서는 주로 깔개류, 방석, 침구류의 재료로 많이 쓰였다. 褥의 재료로는 牛毛氈이 많이 사용되었다. 萬機要覽(1808/1972) 財用編 권4에는 褥席 한 개에 걸은 다홍광적으로 하고 속재료로 우모전 4부가 소용된다고 나타난다. 이는 우모가 섬유 특성상 양모보다는 펠트직으로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석이나 깔개류의 속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農政叢(조선후기/2002)에는 모전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있는데, 다음과 같다. “모전을 만들때는 봄양의 털과 가을 양의 털을 반반씩 섞어 쓴다...(중략) 두텁고 크지 않아야 하며 팽팽함과 얇기를 고르게 조절해야한다. 2년 동안 깔고 자서 더러워지면 9월이나 10월에 鞞氈으로 팔고, 이듬해 4~5월에 모전이 나올 때 다시 새것을 산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층에서도 전으로 만든 깔개류의 사용이 있었으며 시장경제를 통해 구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용된 氈이 재활용되어 鞞氈의 재료로 판다는 것은 신발류에도 氈이 사용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산림경제에서는 전으로 만든 깔개에 해충이 생기지 않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깔개류에 양모전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양모전은 <표 5>에서와 같이 실록에 깔개류의 재료로 많이 나타난다. 晝氈은 특별히 외국과의 무역품이나 왕실 의장으로 사용되어 생활용품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晝氈은 花氈의 일종으로 추측되는데, 화전은 색상이 없는 원래의 펠트조직에 문양이 들어갈 부분의 털을 제거하고 염색한 털을 문양대로 집어넣고 다시 축융한 것이다(이성시, 1999). <그림 11>과 같이 17세기 功臣圖에 나타난 晝에서 그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공신 초상화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교지와 작위를 내리고 왕명에 의해 그려지는 것으로 17세기



<그림 11> 공신상의 晝 부분(조선후기)  
자료출처: 문화재청. (2007). *한국의 초상화*. p. 149.



<표 5> 깔개류에 사용된 氈

명 칭	출 전	사용대상 및 내용
畫氈	太宗實錄 권6, 1403년 9월	무역-明
	世宗實錄 권34, 1426년 12월	무역-倭
	世宗實錄 권120, 1448년 6월	왕실 의장
紅氈	世宗實錄 권23, 1424년 1월	무역-明
毛氈, 阿多介	宣祖實錄 권132, 1600년 12월	사급-우의정 김명원
毛褥板, 毛板衣	英祖實錄 권21, 1729년 1월	왕세자의 관에 끼는 깔개
羊毛氈	燕山君日記 권34, 1499년 8월	사급-월산대군
	尙方定例 권2 別例 上	[産室廳排設]
	日省錄, 정조 2년(1778)	해경궁 진상
褥席 : 牛毛氈	萬機要覽 4 財用編四	[排設] 王大妃殿
毛氈	農政書	모전 만드는 방법
氈褥	山林經濟 권3,	전에 생기는 해충을 막는 방법
	承政院日記, 고종23년	交椅에 덮는 것

<표 6> 氈帽의 賜給과 대상

명 칭	출 전	사용대상 및 내용
氈笠, 毛冠, 氈帽	世宗實錄 권2, 1418년 12월	관찰사 尹坤 도절제사 尹子當
	世宗實錄 권45, 1429년 8월	공녕군 우군도총제 元閔生
	世祖實錄 권5, 1456년 10월	錦城大君, 和義君, 永君
	成宗實錄 권1, 1469년 12월	請承襲使 權
	太宗實錄 권32, 1415년 10월	江原道都觀察使 申商
黑氈笠子	世祖實錄 권2, 1455년 10월	奏聞使 申叔舟 謝恩使 權擘
紅氈笠	萬機要覽 軍政編三	禁衛營, 軍器
猩猩氈	萬機要覽 軍政編三	御營廳, 軍器

작품에 한하여 바닥에 화려한 색채의 氈이 깔려있다. 宣祖實錄(1616/1994) 선조 33년(1600), 우의정 김명월에게 사급된 양모전으로 만든 아다개, 燕山君日記(1507/1972), 연산 5년(1499)에 월산대군에게 사여된 양모전 등을 보면 양모전 깔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왕의 사급품목이었다.

### 3. 氈의 이중적 전개

위에서 언급된 氈의 사용례를 보면 상층과 하층간의 이원적인 분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상층과 하층이 같은 氈을 사용하더라도 氈의 재료나 구성면에서 차이가 난다. 氈의 이중적 전개에 있어서 또 하나

의 특징적인 부분은 氈의 대체용품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사용품의 보급과 관련된 기록은 그 대체용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星湖僊說(이익, 조선후기/1976)에서 추위와 비를 막는 데에는 氈으로 만든 옷이 좋다고 한 기록을 볼 때, 군사용품에 있어서 氈은 사여품목으로서 고급스럽고 귀한 품목이기도 하였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직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사용품과 관련하여 <표 6>에서 왕의 사급품목을 보면 太宗實錄(1431/1958), 1415년에 강원도관찰사 申商에게 氈帽를, 世宗實錄(1454/1958), 1418년에 관찰사 尹坤, 도절제사 尹子當에게 전립을 사급하는 등 실록의 전반에 걸쳐서 氈笠, 毛冠, 氈帽 등이 도관찰사나 도총제사 같은 상급관리직들에

게 사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훈련도감에 들어가는 물품과 일반 군사들에게 사여된 것 중에는 紅氈과 함께 삼승포와 목화의 사여가 많았다. 문헌의 기록을 보면 文宗實錄(1455/1977), 문종 2년(1452)과 宣祖實錄(1616/1994), 선조 31년(1598)에는 毛皮류는 귀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군사들 모두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毛皮物 대신 목화를 보내자는 상소가 있었다. 또 萬機要覽(1808/1972), 軍器편에는 甲衣 376부 중에 氈으로 만든 것은 1부, 무명으로 만든 갑옷은 150부로 가장 양이 많다. 주목되는 부분은 선조 31년(1598)에 군복, 무기, 군량 등에 관계되는 일을 맡아보는 훈련도감에 딸린 관아인 糧餉廳과 禁衛營에 들어가는 물품이다. 여기서는 氈 대신 목화와 함께 三升布를 언급하고 있다. 熱河日記(박지원, 1780/2004) 口外異聞과 新增東國輿地勝覽(양성지, 이행, 1530/1969)의 漢城府에서는 삼승포에 대해 양털에 무명을 섞어 함께 짠 것으로 주로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다. 실록에서 이 삼승포의 언급은 자주 있을 뿐만 아니라 英祖實錄(1781/1994) 영조 35년(1759)에 삼승포가 아니면 갑옷을 만들 수 없다는 기록도 있어 氈과 함께 갑옷의 재료로 중요하게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급관리들에게 사급되는 氈과 달리 하급 및 일반 군인들에게 전의 대체용품으로 목화가 사용된 것은 목화의 기능적인 측면과 더불어 당시 목화의 보급과 전의 유통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 시장경제의 유통을 통해 전과 목화의 관련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 IV. 氈의 유통

조선시대의 양 사육과 양모 생산에 있어서 그 보급과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기록과 조선후기의 풍속자료를 보면 氈 재료의 품질은 다르지만 상류층에서부터 서민층까지 꾸준히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氈의 무역과 그 유통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山紀程(이해웅, 1804/2001), 의복 條에 의하면 18세기에 청과의 모자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 유통 되는 모자의 대부분은 청의 中後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心田稿(박사호, 1829/2001)의 燕紀程에 의하면 모자의 생산지로 유명한 중후소는 동관역에서 18리 떨어진 곳으로 의주 상인이나 조선 사행이 연경으로 들어 갈 때 양털로 만든 펠트모자

를 주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모자와 氈을 사가지고 갔다. 따라서 중후소에서는 펠트직 모자와 함께 다양한 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당시 모자무역과 함께 수입된 氈의 양도 상당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유승주, 이철성(2002)에 의하면 이렇게 수입된 氈과 모자는 각 상인들에 의해 유통되었는데, 국내에 판매하는 전매권을 처음으로 얻어낸 상인은 의주, 개성 상인과 서울에서는 帽子廳民이었다. 서울의 상품유통체계는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육의전 가운데 靑布廳은 承政院日記(조선/1977)의 현종 11년(1670) 10월의 기록에 의하면 원래는 군인들이 수요로 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시전이었다. 점차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군용품 이외에 모자가 주력 상품이 되기 시작하여 일반적인 毛, 氈 등을 취급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수입된 毛와 氈은 청포전을 통해서 군사용품과 왕의 頒賜용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육의전 외에 일반 市廳에서의 유통 과정을 보면 新增東國輿地勝覽(양성지, 이행, 1530/1969), 漢城府에 청포전 외에도 마전교와 돈의문 밖에 內外氈笠廳이 있다고 하였다. 변광석(2001)은 내외전립전이 소털로 만든 병거지를 취급하는 無分廳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무분전은 정부에 대해 일정하게 고정된 세금이 없는 시전으로 부녀자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취급하는 시전이다. 따라서, 전립전을 통해서는 좀 더 저렴한 소털이나 돼지털로 만든 전립, 병거지류가 서민층을 대상으로 유통되었을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그려진 <그림 12> 太平成市圖에서 는 수공업과 관련된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毛를 다루고 있는 장면이 주목된다. 대부분 소규



<그림 12> 太平成市圖(18세기 후반)  
자료출처: 국립중앙박물관. (2001). 조선시대 풍속화. p. 55.

모로 작업하는데 비해 毛를 다루는 집은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따라서 당시 모직물 관련된 수공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貢弊·市弊(조선 후기/1985)의 기록에는 영조 29년(1753)에 전립장들이 각종 毛氈을 제작하고 남은 滓餘毛을 사서 전립을 제작하였다는 기록이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지방장시의 상황은 서울 도성과는 많이 달랐다. 林園十六志(서유구, 1827/2005), 八成場市편에는 각 지역의 장시 이름과 거리, 판매되는 물품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주목되는 점은 피물, 모와 관련된 품목은 많이 보이고 있으나 氈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毛와 함께 氈도 취급하였을 것이라 추정되는 祥原의 毛老場과 皮毛老場, 湖西 公州 毛老院場 두 곳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조선시대 시장체계가 도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그 요인이라 추정된다. 변광석(2001)에 의하면 이러한 도성 집중적 교역망이 형성된 이유는 도성이 정치 중심지이기도 하며 전국의 조세 및 공납물이 조운을 통해서 상납되는 경제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후기 吳希文의 瑣尾錄(오희문, 1589-1613/1990) 기록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쇄미록은 서울 館洞에 근거를 두었던 양반가문의 오희문이 선조대인 1591~1601년 2월까지 약 9년 3개월 간의 사실을 기록한 수필 형식의 일기이다. 이 일기에는 오희문이 양반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상업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목화가 장시와 상품유통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목화를 구매한 지역은 茂朱, 黃澗, 永同, 三陟과 호남지방으로 목화를 토산품으로 하는 지방이다. 목화의 구입시기를 보면 1599년 9월 19일에 74근, 1579년 12월 13일에 60근 등 총 8차례로 대개 가을과 겨울 사이에 대량 구입하고 있다. 즉, 목화는 솜옷과 이불 등 겨울차비를 위한 것이므로 매해 9, 10월에 목화를 대량 구입하여 다시 되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조선초기에 전국적으로 보급된 목화가 조선중기에는 보다 활발하게 유통되었으며, 이에 따라 방한용품으로서 氈보다는 목화솜이 더 일반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氈의 유통범위는 목화의 유통과 비교해 볼 때 일부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대량 생산이 필요했던 군사용품에는 목화가 더 적합 재료였으며 보급률에서도 氈보다 우위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 V. 결 론

펠트직은 우리나라에서 氈이라는 명칭으로 고대 삼국시대부터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氈만이 가지는 직물의 특성으로 장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17세기에 나타난 소빙기 기후 상태와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대륙성 기후로 방한기능으로서의 수요도 꾸준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기의 펠트생산은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양을 사육하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이 아니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양 사육을 관리했지만 그 일차적 목적이 衣料의 생산이 그 주목적이지 아니라 제사를 위한 양사육이었기 때문이다. 양 사육이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않았으므로 氈의 생산도 한정적이었고 일부는 중국에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있는 귀한 물건이었다. 따라서 氈은 기호적인 면과 기능적인 성격의 이중성을 가지고 상층과 하층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었다. 조선중기 이후에는 목화의 안정적인 보급과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氈의 대체 용품으로 무명을 혼용한 삼승포나 목화솜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하층간의 이중적 전개와 대체용품의 등장은 조선시대 펠트의 지위를 알 수 있는 독특한 부분이다. 또한 당시 조선시대의 경제와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유목문화와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을 제공해주었다. 앞으로 유목사회에서 펠트의 전개과정을 같이 비교해 본다면 더욱더 풍성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박물관. (2008). *고려대학교박물관 명품도록*. 서울: 그라픽네트
-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민족역사도감의 생활*.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2001). *조선시대 풍속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00). *霞川 高雲 출토유물*. 광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 김경선. (1832). *燕輶直指*. 임기중 편 (2001). *燕行錄全集*, 71.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 김연옥. (1985). *한국의 기후와 문화*.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종직. (1640). *畢齋集*. 임정기 역. (1997). 서울: 민족문화

추진회.

문화재관리국. (1987). *韓國의 甲冑*. 서울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청. (2007). *한국의 초상화*. 서울: 놀와.

박사호. (1829). *心田稿*. 임기중 편 (2001). *燕行錄全集*, 86. 서울 : 동국대학교 출판부.

박성훈. (2002). *한국 삼재도회*. 서울: 시공사.

박지원. (1780). *燕河日記* 이상호 역 (2004). 파주: 보리.

변광석. (2001). *조선후기 시전상인 연구*. 서울: 해안.

서유구. (1827). *林園十六誌*. 민속원 편집부 엮음 (2005). 서울: 민속원.

성현. (1493). *樂學軌範*. 이해구 역 (2001). 서울: 국립국악원.

양성지, 이행. (1530). *新增東國輿地勝覽*. 한국고전번역원. 자료검색일 2007, 12. 13, 자료출처 <http://www.minchu.or.kr>.

오희문. (1539-1613). *瑣尾錄*. 이민수 역 (1990). 서울: 해주 오씨추담공파중증.

유승주, 이철성. (2002).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서울: 경인문화사.

유형원. (1670). *礪溪隨錄*. 한장경 역 (1962). 대전: 충남대학교.

이규익. (조선). *燃藜室記述*. 민족문화추진회 역 (1976).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이덕무. (조선). *靑莊館全書*. 민족문화추진회 역 (1978).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이미식, 송미경. (2001). 조선시대 충청관의 보존처리. *박물관보존과학*, 3, 29-36.

이성시. (1999).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서울: 청년사.

이익. (조선후기). *星湖僊說*. 민족문화추진회 역 (1976).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이재. (1844). *四禮便覽*. 이수영 역 (1992).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이제신. (1629). *淸江先生鯁鱗瑣語*. 민족문화추진회 역 (1991). *大東野乘*, 1.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이해웅. (1804). *山紀程*. 임기중 역 (2001). *燕行錄全集*, 66.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장숙환. (2003). *전통 남자 장신구*. 서울: 대원사.

정약용. (1819). *雅言覺非*. 김종권 역 (1976). 서울: 일지사.

정약용. (조선후기). *茶山詩文集*. 민족문화추진회 역 (1994).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조영식. (2006). *제품 기호학, 제품에 얽힌 기호 이야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최남선. (1947). *朝鮮常識*. 최상진 역 (2007). 서울: 두리미디어.

최종남, 류근배, 박원규. (1992). 아한대 침엽수류 연륜연대기를 이용한 중부 산간지역의 고기후 복원. *한국제4기 학회지*, 6(1), 21-32.

한국국제교류재단. (1997). *일본소장 한국문화재*. 서울: 한

국국제교류재단.

홍만선. (조선). *山林經濟*. 농촌진흥청 역 (2004). 수원: 농촌진흥청.

*貢弊市弊*. (조선후기). 강만길 역 (1985). *韓國商業史資料叢書*, 2. 서울: 여강.

田中千. (1998). *服飾事典*. 東京: 同文書院.

*高麗史*. (조선). 고전연구실 편 (2002). 서울: 신서원.

*農政書*. (조선후기). 농촌진흥청 역 (2002). 수원: 농촌진흥청.

*萬機要覽*. (1808). 민족문화추진회 역 (1972).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武藝圖譜通志*. (1790). 김위현 역 (1995). 서울: 민족문화사.

*三國史記*. (1573). 고전연구실 역 (2000). 서울: 신서원.

*尙方定例*. (175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자료실.

*承政院日記*. (조선). 국사편찬위원회 역 (1977).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日省錄*. (1800). 민족문화추진회 역 (1998).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增補文獻備考* (190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 (1996).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太宗實錄*. (1431). 국사편찬위원회 역 (1958).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世宗實錄*. (1473). 국사편찬위원회 역 (1958).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文宗實錄*. (145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 (1977).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成宗實錄*. (149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 (1995).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燕山君日記*. (1507). 민족문화추진회 역 (1972).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中宗實錄*. (1530). 민족문화추진회 역 (1989).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宣祖實錄*. (1616). 민족문화추진회 역 (1994).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孝宗實錄*. (1661). 민족문화추진회 역 (1994).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英祖實錄*. (178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 (1994).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正祖實錄*. (1805). 민족문화추진회 역 (1995).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獻宗實錄*. (185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 (1990).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Burkett, M. E. (1979). *The art of the felt maker*. Kendall: Abbot Hall Art Gallery.

Huntington, E. (1915). *Civilization and climate*. New Haven: Yale University.